

불교, 새로운 문화 수용

불교 경전은 종교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새로운 철학·문학·의학·자연과학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인도 고대로부터의 풍부한 지식 체계와 화장火葬, 사리 및 스투파 신앙, 불상 숭배 등의 의례 문화는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문화체계였다. 이와 같은 인도의 불교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식과 문화는 더욱 풍성해졌다.

상업의 발달과 종교의 탄생

기원전 5세기 무렵 고대 인도의 사람들은 원거리 항해교역 등이 발달하면서 기존 종교의 카스트 신분제도에 불만을 가졌다. 이때 자비와 평등을 내세우는 '불교'가 창시되었고, 상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종교로 받아들여졌다.



금동탄생불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세계 종교로서의 전파

기원전 3세기경 전쟁으로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왕은 불교에 의한 통치로 민심을 수습하고 제국을 통합하고자 했다. 이에 불교 경전을 재정비하고 스리랑카·그리스 등 유라시아 각지에 공식 불교 포교단을 파견하여 불교문화를 전파했다.



팔리어 대장경, 해인사성보박물관



티베트 대장경, 해인사성보박물관

Ocean of Buddhism

불교의 바닷길

바다를 통한 문화교류



관람안내

화~일요일 9:00 ~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이 휴관일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051-309-1900 www.knmm.or.kr

바닷길을 통한 문화교류

문명의 여명기부터 인류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다양한 교류를 했다. 이는 '교류'가 인간의 본성이자, 문명 발전의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동·서양은 '실크로드'라 부르는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을 통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교류했다. 이 중 바닷길은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육로보다 효율적이었으므로 7세기 이후 점차 육로를 대신하는 해상 무역의 시대가 열린다.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면서 바닷길은 더 빨라졌다.

이로 인해 해상 무역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불교의 사상과 문화도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From the dawn of civilization, human kind has made various exchanges through land and sea routes. This shows that 'exchange' is part of human nature and is one of the driving forces of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East and West have exchanged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through sea routes, desert routes, and grassland routes called 'the Silk Road.' Among these types of route, sea routes were more efficient than land routes in terms of scale and economy. Therefore, the era of maritime trade began which gradually replaced land routes, beginning about the 7th century.

Travel time was further reduced as shipbuilding and navigation skills were developed, and new sea routes were pioneere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trade through sea routes increased more and more, and the thought and culture of Buddhism spread accordingly.

2020. 12.08.TUE - 2021. 03.01.MON

교류, 바닷길의 바람에 따라

아시아는 기원전부터 육로와 해로를 통해 신앙·언어·예술·의학·특산물·기술·풍속 등을 교류했다. 문화교류는 조공과 책봉 체제, 사신과 지식인의 왕래, 상인들 간의 교역 등 다양한 양상으로 체계화되었고, 새로운 사상인 불교도 이를 통해 전래되며 국가 간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문화교류를 통한 건문의 확대

인도 및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사신들은 해로로 왕래하며 중국에 불교 의례품을 진상했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 불교문화를 전파했다. 이러한 사절단의 모습은 후대의 모사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번한이관제사십이국인물도설

무역로를 통한 구법여행

남조 동진東晉의 법현法顯은 육로를 통해 인도와 스리랑카 등을 순례한 후 선박을 타고 귀국했다. 이때 다량의 경전을 가져와 번역했고, 구법여행기를 저술하여 해상을 통한 구법여행자들도 늘어났다.

법현 불국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좌

혜초 왕오천축국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우



법라, 해인사성보박물관

현장 삼장법사 서유로정기, 통도사성보박물관



항해술을 통한 세계 대륙의 연결

중국 정사에는 광저우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인도로 향하는 뱃길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1세기에는 광저우에서 뱃길로 14개월 후면 인도에 도착했고, 11세기에는 스리랑카까지 42일이 걸렸다. 이는 동·서양의 문화교류로 천문학과 조선술·항해술 등이 발전하여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흔개통현의, 실학박물관

아스트롤라베

간형의, 서울역사박물관

녹터널

불교, 바다를 향한 간절함

불교 경전에는 바닷길 이용 방법과 재난구제諸難救濟의 관음신앙이 기록되어 있으며, 동아시아 항해자들은 무사안녕을 위해 불교에 의지했다. 사회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예물로 불교 의례품을 교역했고, 조선시대에는 해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려는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대장경이 일본에 전파됐다.

불교의 수용, 해양설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될 때, 고구려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육로로 전파되었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백제의 경우는 바닷길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소 전설적이기는 하지만 바닷길을 통해 인도에서 직접 불교가 유입된 설화도 다수 기록되어 있다.

내전수함음소,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불경을 통한 외교, 팔만대장경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은 민심을 통합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정치·사회적 기능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해상 사고로 떠내려온 조선의 표류인 송환 등을 위해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팔만대장경을 전파했다.

바닷길을 통한 불교문화 교류

17세기 조선 숙종 때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이 나주에 표류되면서 가흥대장경이 해안에 떠밀려와 유입되었고, 이를 재판각하면서 조선후기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17세기 김수증의 『곡운집』 「법성전」과 19세기 풍계 현정賢正의 『일본표해록』을 통해 일본과의 송환 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표해록, 송광사성보박물관



불갑사 나한상 및 복장물 유마힐소설경(가흥대장경), 불갑사성보박물관



바닷길의 무사안녕

경전에는 바닷길의 무사 항해 기원과 바다의 속성을 깨우치는 방법 등 항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관세음보살은 물의 신인 '용龍'을 부리며 해상의 안전을 관장한다. 항해자들은 관세음보살에 의지해서 바닷길의 위험을 극복하고자 했다.

관음보살좌상, 국립중앙박물관



관음보살좌상, 화계사



수월관음도, 현등사



천수관음도, 연화사

위로와 염원의 바다

불교는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삶 자체를 바다에 비유하며,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분석했다. 그리고 헤쳐 나갈 방법을 깨우쳐 가면서 모든 사람과 이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극락왕생하기를 바란다.



감로왕도, 해인사성보박물관



반야용선도, 통도사성보박물관

에필로그

고대로부터 동아시아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광범위한 유라시아와 문화교류를 했고, 교류된 문화는 융화되고 재해석되어 문명을 풍요롭게 했다. 해상 실크로드는 오늘날까지도 동서양을 잇는 문화의 연결 고리로서 연안 지역의 발굴과 난파된 무역선의 수중 발굴로 그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시대적 배경과 사례를 문헌과 비교 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바닷길을 이용한 불교문화의 전파에 대한 문헌과 자료를 함께 전시했으며, 앞으로 바다를 통한 문화교류 연구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목어, 보광사

